

눈과 놀고 눈과 산다

조에쓰 시는 일본 최고의 폭설 지대로, 겨울에는 설경이 펼쳐진다.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으며, 눈을 이용한 이벤트가 개최되어 벚꽃 피는 봄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.
또한, 조에쓰 시는 일본 스키의 발상지이다. 일본 스키의 역사는 1911년에, 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인 레루히 소령이 조에쓰 시에서 처음 스키를 지도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. 레루히 소령이 전한 스키는 바로 이 조에쓰 시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.



일본 스키 발상 기념관



눈사람 고원 큐피트 벨리

최장 4,000m의 코스를 포함하여 총 9코스가 있는데, 상급자부터 가족까지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이다. 특히 부드러운 설질로 호평을 받고 있다. 스키와 스노보드 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몸만 와도 문제없다.

영업시간 12월 초 ~ 4월 초

<http://www.yukidaruma-kogen.com/>

영어판 있음